

마태복음 18장 21-35절 말씀

<1>

-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
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
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
- 22 예수께서 이르시되
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**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** 할지니라

<2>

- 23 그러므로 **천국은**
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
-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
25 갚을 것이 없는지라
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
-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
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
- 27 그 종의 주인이 **불쌍히 여겨**
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
- 28 그 종이 나가서
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
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
빚을 갚으라 하매
-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
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
- 30 허락하지 아니하고
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
-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
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
-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
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
- 33 **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**
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
-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

<3>

- 35 너희가 각각 **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**하지 아니하면
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